

생명과학워크숍 성황

「21세기 종자전쟁과 생명공학」 등 2주제로 나뉘어



인간게놈 프로젝트(유항숙단장/21세기 프론티어 인간유전체기능 연구사업단장)의 9편의 발표와 종합토론을 가졌다.

둘째날은 한국육종학회 주관하에 '21세기의 종자전쟁과 생명공학' 주제로 해외연사 2명 (네덜란드 T.Kramer/일본 T.Sasaki)을 포함하여 6편의 연구논문이 소개되었다.

특히 이날 박호근교수(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는 "지금 인류는 종자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기아와의 전쟁, 우수품종 육성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다국적 거대기업간의 전쟁,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간의 전쟁이 그것이다."라고 전제하면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종자와의 전쟁에 대한 우리의 대책도 발표했다.

과총은 지난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생명과학분과워크숍'을 개최했다. 10개 생명과학분야 관련학회의 전문

가 9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분자생물학회 주관으로 열린 첫째날에는 '개농학의 태동과 21세기 생명과학의 운명'이라는 주제로 '한국형

과학기술자문봉사단 광주·호남지부세미나 열려

과총 과학기술자문봉사단 광주·호남지부(지부장 부처량)는 지난 11월 3일 휴비스(HUVIS) 전주공장에서 '21세기 에너지대책과 생물산업 전망'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이 되고 있는 에너지의 중요성과 절약대책 그리고 21세기를 주도할 생물산업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마련됐다.

환경과학기술워크숍 개최 계획

과총 환경과학기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혁)는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환경과학기술워크숍'을 개최한다. '21세기 환경과학기술 -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박호근원장(KIST)의 기조강연에 이어 6편의 농림/해양/환경보존/산업기술부문의 환경정책과 전망이 소개되고 이어 주요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⑤7